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

김영혜¹⁾ · 장경오²⁾ · 김영미²⁾ · 구미지²⁾ · 김소희²⁾ · 이내영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첨단과학의 발전과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건강에 대한 개념과 기대를 크게 변화시켰고, 간호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요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개념의 변화와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인 기대 변화는 건강서비스에 대한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된 곳으로 알려진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한층 높아져 간호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그들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임상모델에서 벗어나 현대의 정신간호는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이 주요한 치료법으로 강조(Bai & Son, 2000)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는 환자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 영역으로서 간호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자와 상담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수적(Lee, Kim, & Lee, 2000)이므로 정신병원 간호사들과 근무자들은 간호 대상자들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내적, 외적 자원을 개발, 활용 그리고 조절하여 대상자에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부서의 근무자들과는 달리 정신병원 근무자들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리사들은 특히 환자, 가족, 의사 및

동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자주 충돌하여 일상에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병원 근무자들인 그들은 자신을 치료적 도구(therapeutic use of self)로 사용하여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일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간호 대상자들에게 비치료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상에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은 간호사는 물론 근무자들 개인의 자아실현과 양질의 간호제공 및 전문직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장애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위한 양적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는데(Koh, 2003; Kim, 2001; Hwang & Hong, 2001; Lee, Kim, & Lee, 2000) 정신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환자와의 관계나 가족간의 지지모임 그리고 정신분열병 환자와 관련된 양적연구(Hyun, Kim, Nam, Yun, Lee, & Lee, 2004; Lee, & Hynu, 2003; Lee, Park, Chun, Choi, Kim, Kim, & Kim, 2002; Lee & Ahn, 2002)가 많이 행하여 졌다. 그러나 질적연구로서 정신과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접근법은 Bai(1998)의 연구뿐이며, 근거이론적 접근으로는 Bai와 Son(2000)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 보면, 정신과 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Costa & Lima, 2003; Edwards & Burnard, 2003; Burnard, Edwards, Fothergill, Hannigan, & Coyle, 2000; Fagin, Brown, Bartlett, Leary, & Carson, 1995), 스트레스 및 소진

주요어 : 정신병원 근무자, 경험, 질적연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투고일: 2006년 2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3월 14일

(Pinikahana & Happell, 2004; Edwards, Burndrd, Coyle, Fothergill, & Gannigan, 2000; Coffey, 1999)과 관련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전문가로서의 정신간호사의 특성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Cutcliffe, 1997), 수준 높은 정신간호사의 전문가적 파라다임(Lindstrom, 1995) 등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 내외 기존연구들은 실제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근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보다 질적 연구가 아닌 양적연구나 문헌을 근거로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으므로 정신병원이라는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정신병원 근무자들이 실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그들의 경험 속에 녹아져 있는 그들의 책임과 역할, 이와 관련된 갈등이나 업무수행의 어려움, 문제점과 보람을 비롯한 심층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수행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매우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인간의 생활세계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인간 과학 철학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Sin, 1999)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1978) 방법이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를 통하여 타 부서 근무자들과 달리 보다 독특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실무 경험의 공통적인 속성의 실체를 밝히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실태와 본질을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정신병원 근무자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llaizzi의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원 근무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실무 경험의 실태와 본질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병원 근무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질적인 정신간호를 지향하며,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및 지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의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생생한 실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연구 문제는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있어 참여자의 선택기준은 연구주제를 경험해 온 사람 중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들으로써(Colaizzi, 1978)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관리자 2명의 총 8명을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er)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그들의 정신병원 근무경력은 6개월~2년이 4명, 3년~5년이 2명 그리고 6년 이상이 2명으로 객관적으로 정신병원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참여자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먼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구한 다음, 다시 연구 참여자의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개인적인 정보,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과 연구종료 후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였으며, 각 대상자별로 자료수집 방법은 주로 연구자의 사무실에서 1~3회에 걸쳐 충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참여자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고 평균 면담시간은 약 30분에서 5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실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이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직접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컴퓨터에 서술하여 저장하였고 인쇄하여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과 공동 연구팀이 모두 서로 공유하여 깊게 읽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1차면담에서 부족한 부분을 2~3차면담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원자료로 돌아가 현상학적인 반응을 하였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원자료를 포괄하면서도 보다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본 연구자는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절차 중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분석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의 자료를 글로 옮겨 기록하였다.
- 대상자의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문자화된 모든 대상자의 진술(protocol)을 반복하여 읽고 의미 있는 문자나 문구를 선택하여 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숙고하였다.
- 대상자의 진술에서 탐구하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찾아내었다.
-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formulating meaning)하였다. 이 때 연구자들은 창조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대상자의 의도를 명확히 묘사하는데 원래의 진술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의미를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하여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으로 총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현상의 공통적 요소를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 본 연구팀은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2명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구팀은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분석과정과 결과를 상호 점검하였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기간 동안 가정, 편견 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원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은 약 33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15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구성을 통해 10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5개의 주제묶음이 조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범주, 주제묶음, 주제 그리고 구성된 의미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분석 내용을 보면 <Table 1>과 같다.

부정적 인지

정신병원 근무자들 대부분은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간호대상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잠재적 폭력사태에 긴장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 대상자들의 정서적 빈곤감과 대화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하였을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경험하고 이때 간호 대상자를 다루기가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사람 또 ‘욱’하는 성격에 내가 위협받고 그런 적이 많아 요. 괜찮다가도 발병을 하게되면 직원들에게 공격도하고 많이 맞는 것도 보았는데.... 그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정말 환자

<Table 1> The experiences of mental hospital workers practice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Formulating meaning
부정적 인지	부담감	힘듦	환자 다루기 힘들
		갈등	환자와의 갈등보다 직원과의 갈등이 더 힘들
		긴장	잠재적 폭력사태에 긴장하며 일함
압울한 감정	거부감	답답함	폐쇄된 곳에서 일하면서 답답함을 느낌
		짜증스러움	동정 어린 시선이 답답하고 싫음 되풀이되는 일상으로 짜증스러움
사고의 전환	사고변화	익숙해감	일상에서 오는 갈등을 견디며 익숙해감 연민으로 환자와 가족을 대하며 서서히 익숙해감
		인식변화	병에 대한 인식변화를 스스로 느낌 내가 일하는 근무처가 바로 환자들의 집
기쁨	긍정적 사고	적성발견	전문적 직업 적성을 발견하여 기쁨 정신과 근무가 내적성에 맞는 것 같음
		성취감	정신과 분야의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낌
가치 발견	보람	자부심	조금씩 좋아지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을 느낌 퇴원한 환자의 좋아진 모습에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김

들 다루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매일 매일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 등에 의해 처음 입원한 간호 대상자와 접하는 근무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폭력, 폭행 그리고 폭언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은 잠재적 폭력 사태에서 긴장하며 매일 매일 근무를 하였다.

새로운 환자들을 보면 적응 잘 못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빼가지고 자해를 하고 그런 환자들도 대개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런식으로 긴장이 많이 됩니다. 밤에도 밤 근무를 서게 되면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가까이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3~4일 정도 그분들을 보거든요 그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러면서 편하다고 생각 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긴장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리사 등의 서로 다른 직렬의 근무자들은 어우러져 간호 대상자를 돌보며 근무를 하고 있다. 어우러져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 발생 시 더욱더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와의 갈등보다 직원 간의 갈등이 있을 시 더욱더 감당하기 힘들음을 토로하였다. 직원 간의 갈등이 계속될 시 정신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없고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여도 계속 같은 폐쇄된 건물의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되는 갈등 속에서 근무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의 부담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제가 중간 관리자거든요? 직책으로 따지면 과장 직급인데 저희 사무원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그 사람과는 1살 차이거든요 한 사람은 일을 지시해야 하고 한 사람은 지시를 따라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깐.. 그 사무원인 본인이 굉장히 active 하고 다이나믹하게 활동하고 싶어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client가 퇴원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제 client의 상태라든지 지금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모르면서 나에게 전화를 해서 client 보내도 되겠지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참 기분 나쁘고 부담스럽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죠 어디 다른 곳으로 갈데도 없고.....

암울한 감정

정신병원 근무자들은 일반병동과는 달리 폐쇄된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과 동시에 병원의 병동 출입문에 자물쇠가 잠기고 그 공간 안에서 간호 대상자들과 접한다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며 근무를 하고 있었다.

출근하면은 병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폐쇄된 곳에 쇠창살 같은 문을 열고 들어 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문을 통해서 나오니까 답답하게 참 많습니다. 어차피 환자들하고 똑같이 안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출근해서 퇴근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똑 같이 안에 있는 거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병원이라는 이 공간 안의 간호사 스테이션을 작은 통이라 표현하고 간호 대상자들을 간호하지만 어느 순간에 간호 대상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도 간호 대상자들과 같이 이 작은 통 안에서 일을 하지만 매우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들의 직장이고 맡은 업무니까 참고 견디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단 모를 때는 굳이 말하면 병원이라는 큰 네모난 통에 환자들이 있고 스테이션 통 안에 또 작은 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스테이션이잖아요 그래 있으면은 내가 환자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중에 환자들이 우리 안보는데는 뭐 짓다하고 스테이션 밖에서는 환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숨도 막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또 답답하다고 뛰쳐 나가가지고 바람 쐬고 올 수 있고 이렇게 아니니까.. 그냥 견디고 참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가족,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이 동정어린 시선으로 간호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까지도 너무 비정상인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어찌겠어요.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무서워하고 니가 거기 가서 할 수 있겠냐? 어.. 니가 거기 가서 두드려 맞지는 않을까? 왜 하필 니가 정신과에 가야 되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동정어린 시선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정신병원

이라는 곳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답답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신병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같은 동정 어린 시선들이 근무자들로 하여금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만 정신병원과 간호 대상자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버려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정신병원은 환자분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정신이상, 한마디로 ‘뜰아이 병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정신병원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런 편견이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조금은 버려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폐쇄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간호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하여 너무 적은 인력으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간호대상자들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근무환경에서의 업무가 짜증스러움으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똑 같은 증상으로 인해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간호대상자들에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근성으로 대충 대답하니 주위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한 곳에서의 계속 되풀이 되는 일상이 짜증스럽게 여겨졌으며 어떻게 하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하므로 정신병원하면 거부감이 들면서 하루 빨리 정신병원을 떠나야 된다는 암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일단은 솔직히 환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치료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환자가..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간호사들.. 주위 사람들이 쌀쌀맞다. 왜 저렇게 쌀쌀 맞느냐? 왜 간호사는 환자는 안보고 차트만 잡고 있느냐? 주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냐.. 정말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환자들은 똑같은 불평이니까.. somatic한 complai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complain들이 많아 지면은 나중에 막 솔직히 조금 짜증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근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정신병원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사과의 전환

정신병원 근무자들은 간호 대상자들과 근무자들 간의 일상

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견디어 내면서 자신들의 직장이고 맡은 업무이므로 힘들지만 서서히 정신병원의 근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견뎌 왔다고 하였다.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일이 일단은 업무고 내 직장이니까 힘들지만 참는 것 밖에는..... 그래서 다 그러죠 이때까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견뎌낸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묘하게 잘 견뎌냈다고..... 서서히 정신병원 환경에 익숙해져서 견뎌낸 것 같아요.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질병 때문에 대접과 사랑을 못 받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점점 느끼며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큰 숙제로 느끼고 있었다. 동시에 근무자들이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단지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그 대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7년간이나 그렇게 지금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제 이제 복지사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안타까움과 안타까운 거에 비해서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많지 않지만 으.....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 그런거 생각하고.....

또한 근무자들은 가족들이 간호 대상자들을 동안 시 하는 것 같아 원망도 처음에는 많이 했지만 가족들을 만나고 상담을 통해 한 평생 정신질환을 가지고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하는 간호 대상자들의 병원비를 내기위해 등쌀 빼도록 일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들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가족들을 연민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보호자들도..... 환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보호자들도 너무한테 웬만하면 좀 데리고 가서 잘 지내보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보호자들도 얘기해보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주다 보면 보호자도 대게 많이 힘들구나! 특히 입원비를 내기 위해서 등쌀이 빠지도록 일한다고 얘기 들으면 60만원 큰 돈이라서.....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많은 상처 받은 간호 대상자들과 어우러져 생

활을 하다 보니 어느 한 순간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 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감정들은 간호 대상자들에 대한 연민으로써 근무자들에게 다가옴으로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것에 익숙해져 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한 순간 가족으로 생각되어 좀 더 세밀하게 간호하죠 진짜 우리 할매 할매 같고 이런 느낌으로 간호하고..... 진짜 우리 삼촌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마음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점점 연민이 느껴져요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와 가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간호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지지해 주며 간호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계속 그들을 지지해주고 간호해주는 입장이 되니까는... 아! 저렇게 일단은 사람이 힘들게 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보듬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정신병원에 대한 생각이 쇠창살로 창문을 막고,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하여 절대 가까이 가기 싫은 곳 그리고 과격한 행동양상을 보이는 간호 대상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위협적인 사람들로 생각하였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이 단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정신병은 만성질환이라고 하데요 처음 근무할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환자들과 생활하다보니까 치료하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난폭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음... 그리고 병이 처음 발생되었을 때 그때 관리를 잘 못해주면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러한 인식변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정신병원에 근무를 하고, 내가 간호대상자들을 돌보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인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은 간호대상자들이 24시간 아니 몇 년을 그 곳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폐쇄된 곳인 정신병원이 간호대상자들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됨으로 근무자들은 간호대상자들에게 치료적인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병원 내에서 보면 환자들은 병원이 집이잖아요 1년도 살고 많게는 4년~5년도 사는데 집이니까 저는 한번씩 들랑 달랑..... 처음에는 제가 주인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환자들의 집이고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곳이고 나는 일만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출 퇴근할 때 마다 환자들한테 더 따뜻하게 더 가족처럼 직장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처럼 특히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까운 사이니까 안아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해주거든요 환자가 대게 좋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항상 안아주고 손잡아 주고 어제 잘 잤어요? 막 이런식으로 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환자의 치료에도 좋은 것 같고 관계 형성에도 좋은 것 같고 그런게 좋은 것 같고.....

기쁨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정신병원에서의 근무를 통해 전문적인 직업 적성을 발견함으로 기쁨을 경험하였다. 특히, 정신병원에서는 간호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자신의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전문적인 직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간호 대상자를 보는 시각이 다른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상담 시 간호 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하게 되었다.

다른 병원에서는 그 시간 내에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환자의 간호보다는 업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환자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환자와 많이 지내는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경험이 많이 되고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경험보다는 정신과가 제한테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수 분야인 정신병원에 근무하면서 일반 간호사나 병원 근무자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간호 대상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멋있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변한 자신을 보면 스스로 대견함 마저 든다고 하였다. 폐쇄적인 정신병원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성격과 직업적 적성에 있어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아주 큰 기쁨을 경험하곤 하였다.

환자들과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고 또 상담시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한테 noti도 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noti를 해서 제가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의견이 반영되고 환자들 간호에 도움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적응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신전문간호로서 나를 발견하고 아주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가치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간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또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가치로운 일로 자부심을 느끼며 조금씩 좋아지는 간호 대상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프로그램 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행동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망상에서 빠져나 올 수 있는 행동 있잖아요 이럴 테면 어제 밤에 TV를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 그렇게 망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해서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많이 시도하죠 그럼 그 사람들도 때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생각하지만 제가 행동을 취하면 그에 반응을 하죠 이럴 테면 TV를 보다가도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서서히 반응을 하는 구나 이제 치료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간호대상자들의 좋아진 모습을 발견하면 무엇보다도 기쁨을 느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가치롭고 보람된 일이라 여기고 있었다.

저번에 퇴원한 환자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환자분이 양복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요 예전에 병원 재활 부서와 연계되어있던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고 있고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는 자부심과 보람이 막 들데요

이렇듯 정신병원 근무자들은 폐쇄된 곳인 정신병원에 근무

하면서 부정적 감정, 암울한 감정, 사고의 변화, 기쁨 그리고 가치발견 등과 같이 실무에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어느 사회 집단이든지 특정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과 정신질환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Chung & Yoon, 2004). 또한 정신병원 근무자들에게도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견해가 우리사회는 파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과 편견의 중심에서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 실무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힘듦과 갈등, 긴장, 답답함, 성취감, 기쁨 그리고 자부심 등의 체험을 생생하게 밝혀내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자신들을 생각하면 암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폐쇄된 곳인 정신병원에서 일하면서 답답함과 되풀이되는 일상으로 짜증스러움이 함축되어 있는데,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폐쇄된 곳인 정신병원에서의 근무와 주위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로부터의 동정어린 시선을 느낌으로 이해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답답함을 느끼며 정신병원에서의 고달픔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되풀이 되는 정신병원에서의 일상으로 짜증스러움을 호소하므로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간호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의 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Jung(2000)은 정신병원은 간호 대상자들이 입원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감옥같이 폐쇄된 곳에서 오는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제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폐쇄된 곳에서 근무함으로써 오는 답답함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거나 또는 근무하는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보아도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있는 환경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간호 대상자들이 외부환경과 단절되어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답답함과 짜증스러움이 전해짐으로 자연히 강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병원 근무자들은 정신병원에 근무한다는 자체로 누구보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암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은 '부정적 인지'로 확인되었다.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일상은 간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간호 대상자들을 다루기가 힘들고, 근무자들 간의 갈등 속에서 간호 대상자들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긴장감 끈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거부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 대상자들을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은 정신질환으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간호 대상자들의 정서적 빈곤감, 대화의 어려움 그리고 이상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간호 대상자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간호 대상자들과의 갈등보다 근무자들 간의 갈등이 더 힘들다고 하였는데 이는 Bai와 Son(2000)이 중심현상으로 제시한 '갈등'에서 동료, 상위직, 의사 및 타 분야의 의료요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과 자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실제 근무를 하면서 간호 대상자들과의 갈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Bae(1998)와 Kim 등(1994)도 접근방법과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근무를 하게 되면 갈등은 존재하며 부정적인 갈등은 근무자들을 힘들게 하므로 간호 대상자에게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긍정적인 갈등은 오히려 근무자들 자신에게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정신병원 근무자들은 항상 잠재적 폭력사태에 긴장하며 일한다고 하였는데 갑작스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간호 대상자들의 공격적인 행동들로 잠재적 폭력사태에 항상 노출되므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신과 간호사의 근무 경험에 관한 Bai의 연구(1998)에서 항상 잠재되어 있는 정신과적 응급사태나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늘 긴장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Lee 등(2002)은 관계형성이 어려운 환자로 심하게 욕설하며 말꼬리 잡고, 공격적인 환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잠재적인 폭력사태에 긴장하면서 일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고의 전환'은 익숙해감, 인식변화로 결국 사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정신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 곳의 분위기와 환경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근무하면서 일상에서 오는 갈등을 견디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간호 대상자들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 두려움, 긴장감, 무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상담, 치료활동, 교육을 통해 간호 대상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해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 대상자들이 참여자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의 친지와 같이 느끼면서 익숙해가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신병원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self-awareness)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곳의 분위기와 환경에 점점 익숙해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치료적 도구(therapeutic use of self)로 활용하여 유용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기쁨'의 경험은 적성발견과 성취감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긍정적 사로 변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정신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적응을 못하여 부정적 감정, 암울한 감정을 느끼면서 서서히 사고의 전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정신병원에 근무하므로 전문인으로서 전문적인 직업 적성을 발견하여 기쁨을 느끼고 정신병원에서의 업무가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하였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를 위해 독자적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성취감을 느끼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더 느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가치 발견' 경험은 정신병원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환자들을 보고 퇴원한 후 외래나 외부에서 만난 간호 대상자들이 좋아진 모습에 보람과 자부심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i(1999), Bai와 Son(2000)이 제시한 퇴원 후 환자의 밝고 환해진 모습을 보면 잔잔한 보람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병원 근무자들이 간호 대상자들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하므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보람, 만족감, 자부심을 느낌으로 그들 업무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정신병원 근무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힘들고 암울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사고의 변화를 통한 사고의 전환은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직업 적성을 발견하고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들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하므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 그리고 자부심으로 이어져 결국 자신들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치로운 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무 경험을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느낀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질적연구 방법들 중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리자 등 8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로 충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모두 녹음함으로 그들의 실무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실

무 경험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원자료로 돌아가 현상학적인 반성을 하였다. 원자료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의 의도를 명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표현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여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 하여 의미 있는 진술이 약 33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 의미가 15개 도출 되었다. 이러한 구성된 의미를 통해 10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5개의 주제묶음이 조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즉, 구성 의미는 환자다루기가 힘들, 환자와의 갈등보다 직원과의 갈등이 더 힘들, 잠재적 폭력사태에 긴장하며 일함, 폐쇄된 곳에서 일하면서 답답함을 느낌, 동정 어린 시선이 답답하고 싫음, 되풀이 되는 일상으로 짜증스러움, 일상에서 오는 갈등을 견디며 익숙해감, 연민으로 환자와 가족을 대하며 서서히 익숙해감, 병에 대한 인식변화를 스스로 느낌, 내가 일하는 근무처가 환자들의 집, 전문적 직업 적성을 발견하여 기쁨, 정신과 근무가 내적성에 맞는 것 같음, 정신과 분야의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낌, 조금씩 좋아지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을 느낌, 퇴원한 환자의 좋아진 모습에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김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는 힘들, 갈등, 긴장, 답답함, 짜증스러움, 익숙해감, 인식변화, 적성발견, 성취감 그리고 자부심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주제로부터 부담감, 거부감, 사고변화, 긍정적 사고 그리고 보람 등의 5개의 주제묶음이 도출되었으며, 5개의 주제묶음으로부터 부정적 인지, 암울한 감정, 사고의 전환, 기쁨 그리고 가치발견 등 5개의 범주(categories)로 최종적으로 조직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살펴보면 정신병원이라는 특수성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리사들을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er)로 그들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기여하고 질적인 정신간호의 지향과 정신병원 근무자들을 이해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리사들을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er)로 한 현상학적 방법의 연구로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수행하여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특수성을 가진 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여러 가지 갈등의 해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전문직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속적이고 활성화 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References

- Bae, J. I. (1998). A experience of the psychiatric nurs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7(2), 298-309.
- Bae, J. I., & Son, K. H. (2000). The experience of families with psychiatric nurse: A grounded theory approach.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9(4), 441-453.
- Burnard, P., Edwards, D., Fothergill, A., Hannigan, B., & Coyle, D. (2000). Community mental health mental health nurses in wales: Self-report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J Psych Mental Health Nurs*, 7(2), 127-134.
- Chung, M. S., & Yoon, K. J. (2004). Study recognition of mental illness between nurse and the general public.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3(4), 420-429.
- Coffey, M. (1999). Stress and burnout in forensic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An investigation of its causes and effects. *J Psych Mental Health Nurs*, 6(6), 433.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Cutcliffe, J. R. (1997). The nature of expert psychiatric nurse practice: A grounded theory study. *J Clini Nurs*, 6(4), 325-332.
- Da Cost JR., & de Lima, J. V. (2003). Strategies for nurses to cope with the stress caused by working with mental patients. *Rev Gaucha Enferm*, 24(3), 325-35.
- Edwards, D., Burnard, P., Coyle, D., Fothergill, A., & Hannigan, B. (2000). Stress and burnout in 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7(1), 7-14.
- Edward, D., & Burnard, P. (2003). A systemic review of stress and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nurses. *J Adv Nurs*, 42(2), 169.
- Hwang, H. S., & Hong, M. S. (2001). A comparative study on nurses'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s in ICU and general unit. *J Nurs Science*, 6(1), 51-66.
- Hyun, M. S., Kim, H. Y., Nam, K. A., Yun, S. H., Lee, H. A., & Chu, J. H. (2004). The effects of the professional support group on self efficacy and burden of the family members with a schizophrenic patient.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3(2), 135-145.
- Jung, J. E. (2000). The hospital experience of psychiatric patien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9(2), 156-169.
- Kim, H. S. (2001). A comparative study regarding health condition and work stress of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and general ward. *J Korean Tumor Nurs*, 1(2), 191-203.
- Kim, H. S., & Kim, M. C. (2005). Study of handwashing by intensive care unit nurse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nursing faculty practice. *J Korean Basis Nurs*, 12(1), 121-130.
- Kim, S. Ja., Kim, Y. H., Yang, S., Rhee, K. J., & Lee, S. W.

- (1994). *Nursing theory*. Seoul: Soomoonsa.
- Koh, Y. K. (2003). Job analysis of the staff nurse in cardiac surgery intensive care unit. *J Korean Acad Nurs Adm*, 9(2), 265-282.
- Lee, E. H., Kim, K. J., & Lee, S. Y. (2000). The attitudes of the inhabitants of kwangju towards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39(3), 495-506.
- Lee, G. Z., & Ahn, H. J. (2002). The effects of videotaped self-observation on the development of insight among schizophrenic clients.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1(1), 89-97.
- Lee, J. S., Park, S. M., Chun, S. S., Choi, J. S., Kim, m. o., Kim, R., & Kim, J. E. (2002). Communication experiences between psychiatric nurses and patients.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1(4), 596-608.
- Lee, J. H., & Hyun, M. Y. (2003). Burden self-esteem and hop in the family caregivers of mentally III persons.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2(3), 268-278.
- Lim, Y. M., & Ahn Y. H. (2003). Knowledge and coping of family schizophrenic patients.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2(3), 195-208.
- Lindstrom, U. A. (1995). The professional paradogm of qualified psychiatric nurses. *J Adv Nurs*, 22(4), 655-662.
- Pinikahana, J., & Happell, B. (2004). Stress,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rural psychiatric nurses: A Victorian study. *Aust J Rural Heath*, 12(3), 120-125.
- Noh, C. H. (2000).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9(2), 145-155.
- Seo, H. H., & Hah, Y. S. (2003). The effect of family psychoeducation on knowledge and caregiving experience for the family with schizophrenic patient.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2(47), 565-575.
- Yang, S., Lee, G. J., & Yu, S. 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work satisfaction of PMHNPs in the hospital and community. *J Korean Psych Mental Health Nurs*, 13(2), 487-495.
- Yi, M. S., Oh, S. E., Eom, M. R., Kim, H. S., Cho, K. J., Choi, J. S., & Lee, K. S. (2002). Characteristics of nursing performance based on the expertise among ICU nurses. *J Korean Adult Nurs*, 14(2), 296-305.
- Son, H. M., Koh, M. H., Kim, C. M., & Yi, M. S. (2006). The experience of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practice. *J Nurs Science*, 36(6), 1012-1022.

The Experiences of Mental Health Hospital Workers*

Kim, Young-hae¹⁾ · Chang, Koung-Oh²⁾ · Koo, MI-Jee²⁾
Kim, So-Hee²⁾ · Kim, Young-Mi²⁾ · Lee, Nae-Young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2) Doctoral Candidates in Nurs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mental health hospital workers. **Method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a total of 8 mental health hospital workers who consisted of nurses, social welfare workers and health managers. To prevent them from being omitted, the interviews were all recorded under the participants prior agreement. The method was analysis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proposed by Colaizzi(1978). **Results:**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classified into 15 significant areas, from which 10 subjects hard work, conflicts, heavy feeling, irritability, getting familiar, changes of recognition, aptitude determination, feeling of achievement and sense of pride were drawn out. These subjects were then grouped into 5 themes. These five themes were finally grouped into 5 categories, negative emotion, depressive emotion, changes of thinking, delight and value discovery. **Conclusions:** The study tried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key informants like nurses, social welfare workers and health managers all of whom were serving at mental health hospitals, contribute to social recognition about the special medical establishment, promote qualitative mental health nursing and further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understanding mental health hospital workers.

Key words : Mental hospital workers, Experiences, Qualitative research

* This work was supported for two years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ng, Koung-Oh
Yongsan-city Health Center
707-2 Sungbu-dong, Yongsan-city, Gyeongsangnam-do, Korea
Tel: 82-55-380-4894 Fax: 82-380-4983 E-mail: chko1015@hanmail.net